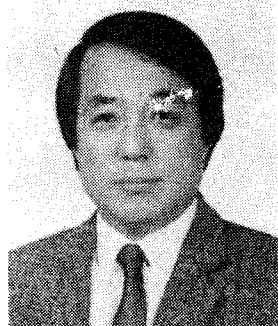


학술특집

미·일 관계와 한반도 군비통제

# 전략구조변화 군축 계기로 작용



신정현  
(정경대 교수·정치학)

I. 서론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는 우선 남북한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군비통제가 성숙된 단계에 도달하여 실질적인 군비감축을 가져오게 될 경우 남북간의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한반도의 군비통제 문제를 미국과 일본간의 군사 전략적 관계와 연계시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군비통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로, 한반도 군비통제체제는 남북한을 주요 행위자로 하여 상호연관성 속에서 필요한 조치들(산출물)을 강구해 나가게 된다. 둘째로, 그러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쌍방간의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안정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셋째로, 한반도 군비통제는 적어도 3가지로 구별되는 국면들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가지 국면들 중 (1)정치적 신뢰구축, (2)운영적 군비통제, (3)구축적 군비통제 등이다. 넷째로, 3가지 국면들에서의 군비통제조치들을 통해, 한반도 군비통제체제는 위기를 극소화하는 변화과정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가능케 한다. 다섯째로, 한반도 군비통제체제의 기능수행은 두가지 수준에서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하나는 남북한의 개별적인 국내적 요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이다.

II. 전후 미·일 안보 체계의 형성

전후 미·일간의 안보체계의 구축은 주로 두가지 요인들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었다. 하나는 패망한 일본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미 의존성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가치

최근 국제정세는 군축소사대의 개막과 새로운 질서의 모색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몰타 미·소 정상회담이후 유럽지역에서의 군축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이나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에는 아직 미·소대항에 따른 군비통제가 유럽지역과 비교해 볼때 매우 미약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반도 주변 세력관계에 있어 우려를 접하고 있는 미·일관계의 변화와 극동지역의 전략 구조개편에 따른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을 논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24일 본고 국제평화연구소(소장 신정현 교수)주최로 열린 '한반도 군비통제 워크숍'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중 신정현(정경대, 정치학)교수가 발표한 논문이다.

(편집자 주)

의 인식이었다.

미·일 양국은 안보조약과 그 부속 의정서에 내포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978년 11월에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극동에서 일어 나는 사태에 대해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600명으로 그 중 육군이 약2,100명, 해군이 약7,400명, 해병대가 약24,900명, 공군이 약16,300명으로 각각 구성되고 있다.

III.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력

전후 일본의 방위 정책은 양면

1959년까지 실시된 차기방위력 정비계획(차기방)에 투입될 총비용으로 23조5천억엔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 중 기동력 투입액에 비해 27%가 늘어날 액수이다. 이 계획이 완료될 때 일본은 완벽한 방위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일본

은 일본과 체결한 안보조약과 이 한국과 체결한 방위조약을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봉쇄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기본 목표를 두었다.

미국의 냉전적 대결 구조를 전제로 했던 대동북아 군사전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9년에 발표된 닉슨 독트린이었다. 이를 계기로 해서 1970년대 들어서부터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 화해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레이건 행정부의 제1기에 있어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과 군사전략은 '신 냉전적' 대소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소련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국제환경이 새로운 화해 무드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소정책이나 대동북아 정책 전반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나타나는 몇 가지 사실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전략적 이익이나 전략체제를 어느 정도 변경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 몇가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련의 위협감 소이다. 둘째는 동북아시아의 안

자국내 재정부담과 '탈냉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군감축의 가능성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 안보 분담 빌미한 日 군비증강, 군국주의 위험 내포 '다변적 공동안보 체계' 구축으로 냉전구조 제거해야

미·일 안보체계가 곧 극동의 안정을 위한 군사협력 체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 안보협력을 구체적으로 도모해 나갔다.

그러한 양국간 군사협력 조치들 중에는 공동군사훈련, 군사장비 기술의 교류, 일본의 미군 주둔에 대한 경비 지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일본으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무기 기술의 공여는 '무기 기술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일본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1988년 현재 주일미군은 50,

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나 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을 반영해 왔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4년에 자위대를 창설한 이래 그의 운용 방향을 변경해 왔으며 동시에 그의 능력을 점차 증대시켜 왔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전략적 체계나 한반도 군비통제 체계의 운용 및 그 기능의 유지를 고려해 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오히려 일본의 점증하는 방위력 강화의 추세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1991년부터

은 비교적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방위력을 계속 증강시켜 왔으며 앞으로 그러한 증강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환경이 탈냉전적인 상호 의존적 체계로 변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1)일본의 경제능력과, (2)3대 핵보유강대국(미국, 소련, 중국)에 비해 여전히 그의 군사력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어느 정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IV.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

전후에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

정이다. 셋째는 미국내의 경제, 재정문제이다.

결국 미국의 대동북아전략은 기존의 안보전략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새로운 상황이 나타남(예: 탈냉전화)에 따라 그의 해외주둔 병력을 줄이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미일관계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개별적인 군사적 상황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상반된 현상이 발견된다. 즉 일본은 점진적이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서면 방위력을 계속 증강시키는 추세에 있는 반면 미국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 있어 그 자신

고 나아가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미·일 안보관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일본간의 군사, 안보관계는 그것이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한 지역적 안정을 기여하는 한 한반도의 군비통제 체계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안정된 전략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군비통제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근 미국이 국방비 삭감이나 그에

다른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셋째, 미국과 일본은 상호안보 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개별적인 접촉과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남북한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그들의 정치적 신뢰와 상호적응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일 안보체계가 소련의 새로운 대북동맹 즉 동북아 지역에서 탈냉전적인 다변적 공동안보체계의 구성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전체적으로 이 지역내에서의 냉전적 구조들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지역협의체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첫째, 일본의 재군비이다. 일본의 자위대 중심의 군비증강이 앞으로 이것이 적극적인 방위를 위한 공격을 무기 개발에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일본으로 하여금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둘째, 미·일 안보체계가 지나치게 현상유지에만 집착하게 될

경우에도 그것은 한반도의 군비통제체계의 기능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일안보체계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탈냉전화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한반도의 군비통제체제는 남북한의 두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관계를 특징으로 하면서도 전략구조상 동북아시아의 군사전략체계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군비통제체제는 미·일안보체계를 포함한 주변동북아 지역의 환경적 요소가 다시 냉전적 갈등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쌍방간 정치적 신뢰구축이나 군사운용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점진적 축적과정(incremental process)을 거쳐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군축과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행태적 기반을 다지는 데까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쌍무적인 군비통제 과정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형성될지도 모르는 다면적 공동안보체계에 의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불임 전문의

서병희(의대·산부인과)교수

부인과를 전공한것에 대한 계기는 "별다른 큰 뜻은 없었어요. 제가 학교 다녔던 그시절은 본교의 초창기였기때문에 사회에 진출한 선배도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냥 강의하시는 교수님



"연구팀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의학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당시 경희의료원 산부인과 과장님이셨다는게 제가 산부인대를 택하게 된 계기가 됐죠"며 멋쩍어한다.

"사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젊은 산부인과 의사는 이렇게 새 생명을 잉태하며 어머니를 환자로 대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는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

할 겨를없이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되고말죠"며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충을 털어 놓는다.

일주일에 두시간정도 강의를 하며 낮에는 계속 환자진료를 하고, 저녁이나 돼서야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서교수는 "토·일요일에도 집에 못들어가기가 태반이예요. 그래도 요즘은 나라에서 기초과학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당장 눈에 띄는 생선물이 없는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요. 외국같이 연구팀, 진료팀이 따로 꾸려져 연구팀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의학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수 있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며 자부심과 열정을 나타낸다.

또한 환자진료, 강의, 연구에 따른 과다한 업무에 대해 "사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메가하는 분야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것 같아요. 덕분에 연구실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자연히 가정은 소홀하게 돼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저희 가족도 지켜주려요. 믿고 고생을 하고 있죠"

전문가가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요즘의 젊은이들은 예전에 비해 한가지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기힘들 현상을 아쉬워하며 말을 맺었다.

(광)

### TOEIC 600 전략시리즈 전6권

- 1권 경향과 공략법 김명기 著/국문/4,000원
- 2권 LISTENING 전략 유정환 著/국문/4,000원
- 3권 문법/STRUCTURE 전략 최기영 著/국문/4,000원
- 4권 WORD POWER 전략 윤창남 著/국문/4,000원
- 5권 READING 전략 박정일 著/국문/4,000원
- 6권 IDIOM 전략 정영진 著/국문/4,000원

### 비즈니스와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는 재미있는 영어 학습교재!

|                                |                                          |
|--------------------------------|------------------------------------------|
| 이 책 한 권이면<br>英語新聞을 쉽게 읽을 수 있다! | (주)시사영어사 편집국 편<br>크라운판 326면 7,500원       |
| 나의 영어실력은?(Test Your English)   | J.G. Stevenson 外 공저<br>4·6배판 212면 4,500원 |
| 영어신문·잡지를 재미있게 읽는 법             | 임진택 지<br>국문 252면 4,000원                  |
| 비즈니스 영어는 이렇게 하라!               | 김용국 지<br>국문 368면 4,500원                  |

|                      |                                                      |
|----------------------|------------------------------------------------------|
| You Know What?(上·下권) | Dennis Dunham, 정봉진 공저<br>국문 각 224면 각권 3,200원         |
| 교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英語     | 이종세 지<br>국문 280면 4,000원                              |
| 미국英語 이래서 재미있다        | 곽호석 지<br>국문 320면 4,000원                              |
| 영어시험에 강해지는 책(전8권)    | 4·6배판 2, 4, 6, 6면 각각<br>1, 3, 5, 7, 8, 8면 각각 5, 500원 |

\*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주)시사영어사**  
문의: (대표) 534-6767, 274-0509  
(업무직통) 275-5258

# TOEIC 800 대책시리즈 전6권

### 취직과 승진을 보장하는 '90년형 최신강!

- 1권 경향과 공략법 김명기 著/국문/4,000원
- 2권 LISTENING 대책 윤병고 著/국문/4,000원
- 3권 문법/STRUCTURE 대책 오재운 著/국문/4,000원
- 4권 WORD POWER 대책 박정일 著/국문/4,000원
- 5권 READING 대책 박정일 著/국문/4,000원
- 6권 IDIOM 대책 윤창남 著/국문/4,000원